

광주시,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 본격화

세계양궁연맹, 광주국제양궁장·월드컵 경기장 등 현장 실사 이용섭시장, 시설 인프라 최적·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배출 홍보

세계양궁연맹(WA·World Archery)이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를 희망하는 광주를 현장 실사하는 등 대회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양궁 국가대표 출신 토마 오베(세계양궁연맹 마케팅책임자)를 책임자로 한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은 지난 20일 3박 4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하고, 21일 이용섭 시장과의 접견을 시작으로 공식 실사 일정에 들어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토마 오베 세계양궁연맹 실사단 책임자를 만나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광주 유치를 희망 하는 시민의 열망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를 위한 시민의 열망이 뜨겁다"며 "광주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시작으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 여러 국제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낸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광주국제양궁장은 160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표준시설로 국내외 대회가 33차례나 열렸으며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전지훈련을 다녀갈 정도로 국제대회에 최적화된 경기장"이라며 "지난 6월에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2021 아시아컵 1차 양궁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등 차별화된 시설 인프라로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1984년 서양산 선수부터 기보배 선수, 도쿄올림픽 금메달 3관왕의 안산 선수까지 광주는 역대 6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며 세계로부터 양궁실력을 인정받았다. 선수 육성을 위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 현재 초등부, 일반부, 실업팀 등 총 20개 팀이 운영되고 있다"며

"광주가 가진 이 모든 에너지가 결집되면 2025년 세계양궁선수권대회를 역대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개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토마 오베 세계양궁연맹 실사단 책임자는 프랑스 국가대표로 활약한 경력이 있는 만큼 현장의 강점이 무엇인지 잘 알 것으로 생각한다"며 "광주가 2025년 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토마 오베 실사단 책임자는 "한국의 양궁인프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대회 유치를 국가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사 기간 광주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다. 2009년 이후 다시 한 번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실사단은 이날 접견 후 이용섭 광주시장, 김병내 남구청장, 기보배 2025세계양궁대회 광주 유치 홍보대사 등의 안내를 받으며 광주국제양궁장이 경기장으로서 적합한 지 등을 조사했다. 실사단은 관중석, 사대, 실내 연습장, 의무실 등을 살펴보고 시설물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30여분간 꼼꼼하게

광주국제양궁장을 살펴봤다.

실사단은 이어 연습경기장인 옛 서양산 올림픽제패 기념 양궁장(현 광주축구센터), 결승전 후보지인 5·18민주광장과 월드컵경기장 등으로 이동해 현장을 확인했다. 22일에는 대회 기간 세계양궁연맹 총회 장소로 쓰일 예정인 김대중컨벤션센터, 650여명 선수단이 묵을 복수의 숙박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다. 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지는 실사단 평가 등을 거쳐 내달 초 WA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광주시와 스페인 마드리드가 2025년 대회 개최지를 놓고 경쟁 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에 나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병내 남구청장 등이 21일 남구 주월동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토마 오베 세계양궁연맹 마케팅 책임자 등 세계양궁연맹 실사단에 광주 유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논이모작 직불금 23000농가에 227억 지급

전남도가 논이모작을 재배 중인 도내 2만3000농가에 전국 최대 규모인 논이모작 직불금 227억 원을 지급한다.

전남지역 논이모작 재배면적은 4만5000ha로, 전국 총 9만3000ha의 48%를 차지하고 있다. 논이모작 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다.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인 논에 전년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한다.

대상 농작물은 쌀보리, 밀·감자 등 식량작물과 정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사료작물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원이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 점검 등을 거쳐 최근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한 통장에 입금할 계획이다. 김경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4431억원에 이어, 논이모작 직불금도 지급을 시작한다"며 "직불금이 농가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속도 전남도, 고흥군·전남TP 협약

전남도와 고흥군이 내년 6월 준공되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전남도는 21일 "최근 고흥군, (재)전남테크노파크와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농업 ICT(정보통신기술) 장비 국산화를 위한 테스트베드인 실증단계의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재)전남테크노파크는 위수탁 협약에 따라 실증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하고, 실증연구를 매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실증기업이 관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연계사업을 발굴한다.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계는 국내 스타트업 스마트팜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나 연구기관, 대학 등이 입주해 실증, 연구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마트팜 기자재 및 장비의 성능 실증을 위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팜 온실과 노지실증 구역을 각각 2ha씩 총 4ha, 17개 구역으로 나눠, 내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실증단계 구축이 완료되면 기업은 스마트팜 농작물 개발, 드론 성능 실증, 아열대 작물 스마트팜 재배기술, 자율주행 농작업기 등의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자율실증 구역에는 소규모 온실 및 복합환경 제어기를 현장에 직접 제작해 테스트 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한다. 특히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아열대 작물 실증구역과 밀폐형 온실, 노지 자율실증구역은 타 시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차별화된 특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담양, 생태문화도시 중심지로 육성"

김영록 지사, 도민과의 대화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담양군을 방문,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호남의 젓줄인 영산강의 발원지이자 정원과 인문학의 고장 담양지역 발전을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대나무밭과 아름다운 가로수길의 대명사 메타세쿼이아길, 문화거리 조성을 통해 생태문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담양 담빛업관 대강당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를 통해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 담양군은 한번 오면 다시 찾게 되는 명품도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로망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담양군 국지도·지방도 확포장을 통해 주민 교통 편의 및 물류·관광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

국지도 60호선 담양 고서-창평 구간은 지난 10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년)에

반영, 4차선으로 확포장된다. 지방도 고서IC-광주댐, 무정-순창간 지방도 확포장 등 적기 완공을 위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 본격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수용태세 사전 확립을 위한 담양군의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 지사는 "담빛아외음악공연장 건립, 역사문화공원을 확대 조성, 관광명소인 죽녹원-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길을 연결하는 관광거점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립한국정원문화원 유치를 통한 정원자원 연구 및 표준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정원 산업화와 세계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쇄원과 죽녹원, 창평 슬로시티와 연계한 남도정원을 올해 내 완공해 정원문화 확산 및 관광 활성화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지역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 나선다

12월5일까지 유학박람회 참여 입학자원 발굴·유학환경 홍보

광주시가 지역 대학과 손을 맞잡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에 나선다.

광주시는 "22일부터 12월5일까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2021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에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람회 공동 참여는 한국유학에 관심있는 해외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시와 지역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2021 지자체와 함께하는 한국유학박람회'는 재외동포·외국인의 한국유학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신규 유학수요 창출을 위해 전 세계에 한국대학의 입학정보, 지역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유학박람회다.

광주시는 국립국제교육원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유학박람회 홈페이지에 광주시관을 개설하고, 광주의 문화, 관광, 유학하기 좋은 환경, 지원시책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대, GIST 등 지역 참여대학은 대학별 온라인 부스를 별도 운영해 대학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채팅 메시지를 활용한 1대1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나선다. 또 박람회 기간을 포함해 3주간(11월22일~12월12일)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해외 포털 등을 활용해 중국, 베트남 등 유학생 비중이 높은 국가를 타겟으로 온라인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대학발전협력단'은 해외 잠재 유학수요자 및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대학 마케팅영상 제작, 지역거주 맞춤형 채용박람회 개최, 행정인턴십 운영, 팜 투어 및 기업체 탐방 등 유학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쉬운, 여유 남원에서 만나다

남원시 | 남원에촌 |

|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 **| 서도역 옛 기차길 |** **|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 |**